

서부중학교 신축 공사 '속도'

신설부지 내 문화재 정밀조사 결과 '문제 없다' 결론 용역진 "확인된 '탐라 유물' 기록 보존 후 공사 시행" 도교육청 "2025년 11월 착공... 2027년 3월 개교 목표"

제주시 외도동에 설립을 추진 중인 중인 (가칭) 서부중학교 신설 부지에 대한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 결과 "(신축) 공사를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아울러 발굴된 유물들은 '현상 보존'이 아닌 '기록 보존' 할 것이 제안되며 학교 설립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따르면 '제주 외도1동 55번지 일원 (가칭) 서부중학교 신축 부지 내 유적 매장유물 시·발굴조사' 용역이 마무리됐다. 용역은 재단법인 제주고고학연구소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시행했다.

용역진은 (가칭) 서부중 신설 부지 전체를 대상으로 시굴 및 정밀 발굴 조사를 벌였다. 정밀 발굴 조사는 시굴 조사를 통해 확인된 매장문화재 분포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작업을 뜻한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용역진은 "금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구와 유물에 대해 철저히 '기록 보존'한 후 공사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고 결론지었다.

정밀 발굴 조사 결과에 따른 문

화재 보존 방법은 출토되는 문화재의 양과 학술적 가치 등에 따라 '기록 보존', '이전 보존', '현상 보존'의 3단계로 나뉜다. 이 중 기록 보존은 개발사업 지구 내에 매장문화재가 분포하는 것이 확인됐지만 현상 보존이 어려운 경우 발굴 내용을 기록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발굴 조사를 종합한 결과, 발견된 유구들은 '주거지'가 아닌 '생산' 또는 '저장', '급수' 등 농경 관련 용도로 판단되는 유구가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진은 "주거지로 판단될 수 있는 유구가 뚜렷하지 않으며, 생산과 저장, 급수와 관련된 유구가 다량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철기시대~탐라시대 전기까지의 외도동 취락 구성원들의 생산(생업) 공간 유적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대형의 구상 유구는 조사대상지 외곽으로 연장돼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지만, 배수의 용도 이외에 치수 또는 집수를 하거나, 농경과 관련된 시설일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용역진은 "유적에 대한 3D 측량과 드론촬영자료를 포함해 유적의 성격을 도출할 자료를

종합한 설명문을 설치하고, 성형석은 학교 유희부지로 이전·보존한 후에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사실상 신설 사업에 제동을 걸 만한 학술적 가치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서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도교육청은 용역 완료보고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 결과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동시에 도교육청은 서부중 신축 공사 설계용역 공모도 진행 중이다. 설계용역 공모는 오는 9월까지 진행되며,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설계 용역이 이뤄진다. 도교육청은 용역 진행과 함께 환경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심의도 거치고 2025년 11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국가유산청의 문화재 조사 결과와 나오면 설계공모, 실시실제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2027년 3월 조기 개교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서부중 신설 부지에 대한 '발굴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철기시대~탐라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수혈 유구 161기, 우물 33기, 소도 유구 45기, 구상유구 40기, 목책벽 1개소, 굴립주 건물지 2동, 적석 유구 1기, 성형석 1매와 조선시대에 해당하는 민묘 3기 등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동제주시-서제주시 어떻게 분리하나"

제주시,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응 TF 한시적 운영

제주시는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아래 조직·인사, 재정, 공유재산 등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된 '기초자치단체 설치 대응 TF'를 운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이 조직은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골자로 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대비책으로 2026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특히 제주시의 경우 행정체제가 개

편되면 현행 단일 행정시에서 2개의 기초자치단체로 분리 설치됨에 따라 사전에 그에 대한 대응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TF는 월 2회 이상의 토론회를 벌이며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또한 동·서 분리에 따른 대응 계획 마련이 필요한 검토 과제를 발굴하고 협의 체계 구축에

나선다.

앞서 지난달 21일 TF 1차 회의에서는 공유재산 배분과 관리 기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매주 한 차례씩은 제주시 부서장 주재로 전 부서장이 참석해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검토 과제 공유와 토론회도 이어가기로 했다.

제주시 측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서 "새로운 행정체제 도입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2024 제주愛 빠지다 ② 레슬리 허도우·이경미 부부

한라산이 맺어준 부부... "제주는 운명"

"한라산이 맺어준 부부의 연, 평생 간직하며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제(6월 30일) 분사 북카페에서 만난 레슬리 허도우(38)·이경미(44) 부부의 모습은 사랑으로 가득차 보였다. 신혼 집(제주시 일도2동)에서 걸어왔다는 이들은 일하는 시간을 제외하면 언제나 '함께'라고 했다.

이들은 입을 모아 지난날들을 회상했다. "2021년 6월에 제(레슬리)가 먼저 제주에 와 있었고, 아내와는 5개월 후인 11월에 만나 한라산에 함께 올랐죠. 자연을 좋아하는 저희에게는 한라산은 부부의 인연을 갖게 해준 고마운 곳입니다." "저(경미)도 우연한 기회에 한라산을 오르고 싶다는 생각이었죠. 마침 기회가 돼 한라산을 함께 오르는데 남편이 가이드를 자처했죠."

이렇게 이들은 한라산 등반 이후에 연인으로 발전했고, 4년차 제주살이를 이어가고 있다. 레슬리씨는 학원 강사로, 경미씨는 회사를 다니면서 쉬는 날이면 제주의 산과 오름, 해안, 올레길, 섬들을 찾다니며 제주 자연을 만끽하고 있다. 요즘, 오일시장과 제주 맛집을 찾다니는 일도 한창이다. 목곡, 고사리육개장, 대방어와 한라산소주, 감골, 한치 등 모든 음식이 맛있다고 했다.

생물학을 전공한 레슬리씨의 또 다른 취미는 탐조활동. 새들을 관찰하기 위해 도내 철새도래지는 물론 마라도, 가파도, 비양도, 우도, 추자도 등 섬을 찾는 일이 잦다.

"제주는 제가 살았던 밴쿠버의 날씨와 비슷해서 고향과 같다는 친밀감이 많이 들어요. 특히 자연, 숲, 해안들이 아름답고 탐조를 할 수 있어서 더 좋아요. 요즘은 집 근처인 사라봉공원이나 신산공원, 멀리 동백동산을 찾고 있지요."

이들 부부는 제주시를 떠나 서



캐나다 고향인 레슬리 허도우씨와 이경미씨는 제주살이 4년차 부부다. 이들 부부는 한라산이 맺어준 인연이라며 제주에서의 삶은 지루할 틈이 없다고 했다.

캐나다·광주 출신 기적처럼 만나 제주살이 4년차 산과 바다 찾고 학원강사·탐조활동 "나는 행운아" 서귀포시 살고 싶은데 일자리 부족해 다소 아쉬워

그는 생물학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고, 캐나다와 청주에서 록 밴드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다재다능한 재주를 가져 설 틈이 없다. 제주에서도 밴드를 결성해 활동하고 싶다는 희망도 내비쳤다.

"고맙습니다(고마워요), 유니크(독특한)한 제주어에 대한 관심이 많아 더 공부하고 싶어요. 그리고 전공과 관한 일들인데, 학교나 대학에서 자연이나 과학에 대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어요. 탐조가이드도 생각 중이고, 제주 자연에 대한 그림과 글을 넣어 책을 만들고도 싶어요. 예술성을 더한 다크도 제작해 보고요."

이처럼 활동량과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제주에서의 삶은 지루할 틈이 없고, 이러한 제주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살고 있는 자신은 '행운아'라고 했다.

이들 부부는 제주시를 떠나 서

귀포시의 삶도 계획하고 있다. 다만 학원 강사 자리는 있는데, 사무직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해 선택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 행복하게 살기에는 제주보다 좋은 곳도 없을 것이라는 부부다. 차 없이 '투박'의 삶을 살고 있는 부부의 모습은 여유롭고 또한 정겹다. 필요하다면 자전거를 타고, 장거리로 대중교통 편이 없는 오름을 오를 때면 렌터카를 타고 다니는 이들에게 교통은 불편함이 아니다. 조금은 느리고 삶이 불편하더라도 제주의 삶은 매우 만족한다는 평가다.

서로 손을 맞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이 제주라는 배경과 잘 어울린다. 서로에게, 낯선 곳이라도 스며드는 삶의 자세가 아름답다.

백림기자 haru@ihalla.com

2023~2026 인문도시지원사업

수월한 인문학

2024. 7. 8.(월)~8. 12(월)

강좌 기간 2024. 7. 8.(월)~8. 12(월)
강의 장소 제주시 소흥협력센터(제주시 관덕로 44 제주소흥협력센터)
강좌 일시 강좌 기간 내 매주 월요일-수요일 18:30~20:30

신청 기간 2024. 6. 24.(월)~2024. 7. 5.(금)
신청 방법 1) 쿠팡코드(QR코드)
촬영 후 구글폼을 이용하여 신청
2) 인문과학연구소 누리집
(humanism.jejunu.ac.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은 후 작성 및 전자우편(humanity@jejunu.ac.kr) 제출

기타 문의 · 제주대학교 인문도시지원사업 064-754-2712, 2333
· 카카오톡 채널 추가 및 문의 카카오톡 -> 친구 검색 -> 인문도시지원사업 -> '제주대학교 인문도시지원사업단' 채널 추가

구분	강사명	날짜	강의 주제 및 강의명	강의 장소
1	최진아	7/8(월)	오랑캐의 땅-동아시아의 맛이 되다	소흥협력센터
2	서영표	7/10(수)	기후위기 시대의 사회학: 인간, 동물, 사물의 관계 다시 생각하기	소흥협력센터
3	조현진	7/15(월)	신의 죽음과 문학	소흥협력센터
4	양정필	7/17(수)	개성상인의 기행과 경제활동	제주대학교
5	박원만	7/22(월)	조선 후기 후궁(後宮)의 지위와 추종	소흥협력센터
6	박여진	7/24(수)	세상을 바꾸는 스토리텔링의 힘	소흥협력센터
7	이중수	7/29(월)	조선시대 '송유원'의 실상과 허상	소흥협력센터
8	황정연	7/31(수)	조선의 공물서화 수집가들	소흥협력센터
9	정민경	8/5(월)	중국 신화,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소흥협력센터
10	신은화	8/7(수)	힘요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이란? -뉴스바움의 철학적 성찰을 중심으로-	소흥협력센터
11	허남준	8/12(월)	일곱 가지 인문학적 사고	소흥협력센터

*상기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주최 교육부 NRF 한국연구재단 주관 제주대학교 후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

※이 프로그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되었습니다.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酉 一 日 祚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정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블랙아일랜드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물당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심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111만원+20만원(4년차 5만원씩 나눠서 지급)]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한국은행
시외버스터미널 오라바움스 국제보청기(국제기2층)
한라체육관 실내수영장

대표 임창완

직접수리·당일착용

국제보청기 ☎ 064-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계 2층)

주택·아파트·상가 빌딩

리모델링의 새로운 변화!

시설물·금속·창호·도장·방수
조경시설물·전문건설업

제주시 서광로 256. 4층

킴/건축디자인

010-2699-7080
F:064)723-1045 / E:ehdrb0064@hanmail.net